



▲ <타보르 산에서 그리스도의 변모>, 조반니 벨리니(1455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f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창세 12,1-4 가  
[화답송]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후렴) 주 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 대로 자애를 베푸 소 - 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티모 1,8L-10  
[복음환호송]..... 마태 4,4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 마태 17,1-9

- [성가안내]
- 입당성가 [72] 타보르 산의 예수
  - 봉헌성가 [223]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 성체성가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영복 아네스	경 가밀라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주득송	안영옥 분다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James M Hunt	울릿다 김
김상욱	강혜숙 바울라
강세랑 엘리사벳, 강건대 마리아	강호영 안드레아
김영복 아네스, 김창진	강호영 안드레아
백미사	
이경자 벨라렛다	울드레아
김택형 사도요한	이아림 수산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8일	채봉석 그레고리	김종화 필립보	민완준 필립보	오윤서 클라라	김희진 마르가리타	성미나 김 이	신정묵 창동환	민재인(성가대)
3월 15일	조완준 바로로	장철순 스테파노	박신희 리나	황세유 루카스	윤숙자 루시아	백이백 이정현	임유진 김하나	홍민철(성가대)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건강교리	주일 10:50am-12:10pm, 교육관 5호실

[복음 묵상]

“산에서 내려가기”

성지를 순례하고 피정을 하다보면 신자들에게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될 때가 있다. “신부님,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수난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성당으로 모이고 순례와 피정을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내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은 우리가 걷는 사막에서 잠시 만난 '오아시스'이기 때문이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황들과 마주하기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너무 힘든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주변에서 맴돌고 가정생활이 불편해 거리를 헤매거나 쾌락을 찾는다. '사이비 종교'는 일상에서 나와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자신들만의 장소에 머물라고 가르치지만, '진정한 종교'는 탈출하고 싶고 무미건조하며, 지긋 지긋한 바로 그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초대한다. 단 신앙 안에서 얻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함과 화려함에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이야 어찌 제자들만의 마음이겠는가? 예수님은 더욱 간절하셨을 것이다. 내려가자!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편안함 그리고 화려함이 내가 내딛어야 할 그 발을 잡고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가정과 일터를 떠난 다른 곳에서 느껴진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Adex**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레지오 회합 안내]

구세주의 모후pr	주일 08:00 am	Conf. Rm(2F)
바다의 별pr	주일 08:00 am	교육관 3
은총의 샘pr	수 03:00 pm	Korean Conf. Rm(2F)
평화의 모후pr	수 07:30 pm	Korean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화 07:00 pm	Korean Conf. Rm(2F)
신비로운 장미pr	월 07:00 pm	Korean Conf. Rm(2F)
사랑의 샘pr	주일 01:00 pm	Conf. Rm(2F)
희망의 모후pr	목 07:00 pm	Korean Conf. Rm(2F)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행사]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 취소

☉주일미사 전, 고백성사 있습니다.

☆3.14(토), 청년미사 없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연기

성주간과 파스카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4.9. 8Pm. 윗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 4.10. 8Pm. 윗성당
  - 파스카 성야 : 4.11. 9Pm. 윗성당
- ☺파스카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 전주교구사목대교구장 인문 2020.2.26 -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청년성서모임 참가자&봉사자

-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소그룹 안에서 성서 말씀과 생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 봉사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신청마감 : 3.22(주일)
  - 개강 : 3.29(주일)→연기
  - <요한>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 대표봉사자 : 이수현 소화데레사 646.251.4413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푸르실료 수강자

- 이상, 순종, 사랑을 모토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동행을 위한 푸르실료 3박4일의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4.23(목)-26(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 대상 :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로 본당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분
  - 문의 : 본당 올뜨레야간사 민완준 필립보 929.444.1411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2,610
교무금	민완준 박종옥 손계숙 이경자(울) 김행자 고은경 이동혁 민재인 양미숙 김택영 린다김 채봉석 노혜영 김종화 송명자 김애희 김창훈 엄기섭 부원희 김영희 김승한 서경자 윤동진 김지영 박신희
감사헌금	\$ 0
합 계	\$ 2,610

- ❖ 꽃봉헌 : \$ 0
- ❖ 친교실 이용을 중지한 관계로 미사예물 및 교무금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성경통독 입문서 판매

예약하신 분은 윗 성당 입구, 도서성물부 코너에서 찾아가세요. \$20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취소

3월 성경 공부 : 휴강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구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가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필리 4,6-7)

나에게는 아이가 한살이 되기 전 또래 친구 엄마로 만나, 지금까지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 결혼 전엔 천주교 신자였다가 한차례 큰마음의 병을 치르며, 치료에 도움을 주었던 개신교 친구를 따라 개신교 신자가 된 분으로, 종교가 삶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 온 뒤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왔지만, 이 분이 저에게 특별한 것은, 제가 힘들 때 늘 먼저 달려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경험으로 위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모태신앙의 길잡이인 친정엄마 다음으로 저에게 신앙적으로 깨어있도록 손을 잡아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입니다.

몇 년 전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을 무렵, 마음을 따라 몸이 아팠던 건지, 아픈 몸을 따라 마음도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꾸준히 나가지도 않던 성당마저 미사 시간이 되면 껍데기만 앉아 있는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그 속마음이, 때마침 전화한 그 언니에게는 보였는지, 언니는 당장 만나자 했고, 몇 번이나 약속을 반복하고 실랑이를 하다 겨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저는 어느 샌가 그 언니에게 고해성사하듯 마음 저 깊은 곳 얘기를 술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장소였는데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나만 혼자 불쌍한 사람인 듯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참 볼성 사나웠을 텐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듣던 언니가, 진심의 위로와 눈물 섞인 충고를 해주었을 때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대화라는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그라졌다 생각했던 신앙심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당시에 얘기해줬던 구절이나 말씀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과거의 언니처럼 마음의 병이 생길까 두려워 미리 예방약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던 한때의 저를 잘 아는 언니는, 저에게 자신이 겪은 주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소중한 여기는 성경책도 따로 선물을 해주는 등, 말씀의 약을 처방해 준 것입니다.

그런 애뜻한 선물을 받고도 아직 저는 '성경 통독하기'가 매년 새해 결심 첫 번째 이긴 합니다만, 그날 받은 성경책에서 처음 펼쳐본 그 내용만큼은, 아직도 수첩에 적어 다니며,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기도하듯 읽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보잘 것 없는 저에게도 신심 깊은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또 한 번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기회를 주셨기에, 저에게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과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고통 받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사실 주님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려 하신다는 걸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본당 게시판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침]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보도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는, 교우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당 방침을 알려드리오니, 지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 미사 이외의 모든 활동은 중단합니다(청년미사도 중단합니다).
2. 3월8일 예정되었던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그리고 주일학교, 한국학교, 레지오 회합, 예비신자 교리, 모든 단체 모임(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청년 성서모임 포함)등도 중단합니다.
3. 친교실 사용 역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무금 및 미사 신청은 2층 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뉴욕대교구 방침에 따라, 미사 중 성혈은 영하지 않습니다.
5.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때 손잡지 않기, 평화의 인사 때 악수하지 않기 등은 계속됩니다.
6. 한국이나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가족 중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 경우, 최소 2주 자가 격리를 합니다.
7. 발열을 포함하여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8. 6.7에 해당되는 경우, 주일미사 참석 대신, 묵주기도 5단, 해당 주일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 홍봉운(바오로) 지군자(스테파니)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박신희 리나